

COVID-19 확산이 승마이용에 미친 영향과 승마산업의 발전방향

홍성준¹ · 황인선²

¹한국마사회 연구원 · ²숙명여자대학교 강사

The impact of the spread of COVID-19 on horseback riding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horseback riding industry

Hong, Sungjoon¹ · Hwang, Insun²

¹Korea Racing Authority · ²Sook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aterials necessary for expanding and activating the equestrian base by comparatively analyzing data related to the use of horseback riding in the era of COVID-19. To this e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ocusing on horse industry statistics, support projects and funds. First,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the number of horseback riders decreased, but most of them were just someone who enjoys going out on the occasional riding rather than regular riders. Second, as a result of low execution rate of the government plans for students to experience horseback riding, the regular riders decrease about 25% in 2020. Third, the sales of equestrian facilities decreased by 28.5%, the number of employees at equestrian facilities decreased by about 12.5%, and the total number of horses decreased by about 6.4%. Fourth, for people who rides horses both in 2019 and 2020, the number of ridings decrease about once a year, but the impact from COVID-19 was only 0.4 times. As for the considerations to ride, tourism purpose was 44.6% in 2020, (in comparison 66.2% in 2019), and the propor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location, facilities) increased by about 3 to 14%.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regular horseback riders in 2020 increased by 3.3%.

Key words : horseback riding, horse industry, horse riding industry, COVID-19

주요어 : 승마체험, 승마산업, 말산업, 코로나19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wang, Insun

E-mail: hissun46@nate.com

Received: August, 08, 2021 Revised: September, 05, 2021 Accepted: September, 17, 202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말 발병하여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는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으며(고광욱, 2020),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서 외로움,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권대환, 2021). 이러한 부작용 현상을 일컬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으며, 정신건강 유지나 적절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윤지인, 한진욱, 이지원, 202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가활동으로서 스포츠활동, 특히 개인 스포츠의 경우에는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여가활동 유형과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한 삶에 관한 연구에서 스포츠활동이 다른 여가활동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향상 시킴으로써 행복한 삶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양례, 2009), 생활체육 참가 정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 또한 높다고 하였다(김경식, 2006).

한편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현대인들의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식의 변화,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조한범, 김미향, 우승주, 한성희, 2014). 특히,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도입(2004년 7월 시행)에 이어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2018년 7월 시행)의 확대 시행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동 근로시간이 축소되고 여가를 향유 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여가활동의 중요성과 관심의 폭이 넓어지는 가운데

현대인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의 하나가 스포츠활동이며(구자홍, 이재범, 김용국, 2011),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국민적 관심은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 증대로 이어진다고 하였다(서승태, 2015).

코로나19가 사회의 모든 부분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승마는 사람과 말이 하나가 되어 교감하는 스포츠로서 비대면 스포츠로는 최고로 손꼽히는 레저 스포츠이다(스포츠조선, 2020). 요즘처럼 단체·실내운동에 제약이 있는 시기에 안전을 위해 코치 1인당 최대 5~6마리로 진행돼 다른 스포츠보다 거리두기에 대한 부담이 적은 야외스포츠이다(김두용, 2021). 국내 말산업 시장규모는 2019년 3조 5000억원에 육박했으며, 업체수 2478개, 승마시설 수 459개소, 정기승마인구 5만7046명, 체험승마인구 86만2510명으로 명실상부한 레저산업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김하늬, 2021).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승마는 국민들에게 매우 적합한 스포츠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승마는 말과 사람이 교감하고 상호 간 움직임을 함께하는 운동으로, 말과 일체된 올바른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동물 애호정신을 통해 인간애를 고양 시킬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의 발전으로 점차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비용, 귀족스포츠로의 인식 등 여러 제한점으로 승마는 크게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승마산업은 선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에 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송성인, 2012).

정부는 2012년 말산업육성법 제정 후 한국마사회를 전담기관으로 하여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2차례(2012~2016, 2017~2021)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제3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2022~2026)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말 사육농가가 승마시설을 겸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승마체험지원사업과 공식적인 체육 교과로서의 승마산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승마시설의 수와 승마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승마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승마가 대중적 여가 스포츠로서 자리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성공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팬데믹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승마산업의 발전은 2020년에는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승마이용자수는 2019년 919,556명에서 497,230명으로 45.9% 감소하여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골프산업과 비교할 때, 개인·야외스포츠로서 승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문적으로 승마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 승마산업 지원 정책 분석(윤여경, 조광민, 2017), 계룡시 승마관광 도입 기초연구(전명숙, 2019), 승마체험 동기, 가치, 만족도 및 행동의도(이충기, 고성규, 김진옥, 2014), 제주지구력승마페스티벌 경제적 파급효과(고봉조, 여영준, 류연철, 2018), 경마, 승마 활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김창희, 강희재, 김수욱, 2015), 승마레저 참여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임찬연, 2014), 승마용품 구매결정요인(박재홍, 2015), 승마산업 정책 우선순위 결정(박진국, 2016), 제주도 승마 참여제약, 중단원인(김봉수, 백혜경, 양명환, 2016) 등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었으며, 승마활성화 방안연구(서승태, 2015; 서명천 등, 2021; 전운수, 2011; 정호권, 2013)도 진행되었으나, 코로나 19 시국을 극복하고 야외 레저활동으로 승마산업이 나아

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연구가 질적 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승마이용과 관련한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승마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의 확산으로 승마 유형별 이용자수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COVID-19의 확산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집행률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COVID-19의 확산으로 승마시설 운영 여건 변화는 어떠한가?

넷째, COVID-19의 확산으로 승마 이용 환경 및 형태 변화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COVID-19가 승마이용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2019, 2020a, 2020b, 2020c, 2021a, 2021b) 자료를 토대로 국가통계인 말산업실태조사 자료와 행정자료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 집행내역, 마사회 내부 수집된 사업체 정책조사 자료, 국민참여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선행연구 및 문헌 등을 토대로 승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말산업실태조사

2016년 국가통계로 승인되어 매년 실시되는 말산업실태조사는 말산업육성법에 근거한 법정 조사로서 국내 말사육농가 및 말산업 사업체 등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말산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생산 및 말산업의 발전정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자료이며, 말산업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실시됨에 따라 표본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표 1>은 말산업 실태 조사의 승마 이용자에 대한 조사항목으로 승마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승마이용자 수와 승마시설 자체 서비스 유형에 따른 승마이용자를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특히 승마시설 자체 서비스 유형의 경우에는 회원 구분뿐만 아니라 종사자(교관/직원) 및 개인 승마(본인, 가족, 지인 등)까지 구분하여 상세하게 집계하고 있다.

표 1. 말산업실태조사 승마이용자 조사항목(2019~)

		구분	
승마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학생승마체험	일반국민승마
		사회공익 힐링승마	학교체육 승마도입
	그 외 지원사업 (지자체, 교육부 등)	연간 10회 이상	연간 10회 미만
		자마회원	
	월회원		정기쿠폰회원(연간 10회 이상)
승마 시설 자체 사업	힐링·재활승마	1회성 체험승마(1인당 누적 횟수)	종사자 (교관/직원)
		연간 10회 이상	연간 10회 미만
	개인승마 (본인, 가족, 지인 등)	연간 10회 이상	연간 10회 미만
		정기쿠폰회원(연간 10회 이상)	
	힐링·재활승마		1회성 체험승마(1인당 누적 횟수)
종사자 (교관/직원)	연간 10회 이상	연간 10회 미만	
	개인승마 (본인, 가족, 지인 등)	연간 10회 이상	연간 10회 미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0년도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

그러나 조사문항과 달리 통계 공표 시에는 정기승마인구와 기타승마인구로 단순하게 구분되어 공표되고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승마를 하는 경우 정기승마, 10회 미만인 경우는 기타승마를 의미한다. <그림 1>의 승마이용자수 집계와 통계 공표 유형의 연계에서, 정기승마인구는 승마횟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공표되며, 기타승마인구는 누적되는 승마횟수를 말한다.

승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지원사업 3종(사회공익 힐링승마 제외)과 연간 10회 이상 실시되는 그 외 지원사업이 정기쿠폰회원으로서 정기승마인구로 산입되고 있으며, 사회공익 힐링승마는 힐링·재활승마로서, 연간 10회 미만 실시되는 그 외 지원사업은 1회성 체험으로서 기타승마인구로 산입되고 있다. 반면 승마시설 자체 서비스는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자마회원, 월회원, 정기쿠폰회원으로 구분되며, 자마회원은 말을 개인이 소유하나 해당 시설에 위탁사육하는 경우, 월회원은 1개월 단위로 승마이용을 등록하는 경우, 정기쿠폰회원은 일정 횟수(연간 10회 이상)를 한 묶음으로 등록하는 경우로서 모두 정기승마인구로 산입하고 있다. 반면 1회성 체험승마는 기타승마인구로, 종사자 및 개인승마의 경우는 연간 10회 이상은 회원 외 승마인구로서 정기승마인구로, 10회 미만은 1회성 체험승마인구로서 기타승마인구로 각각 산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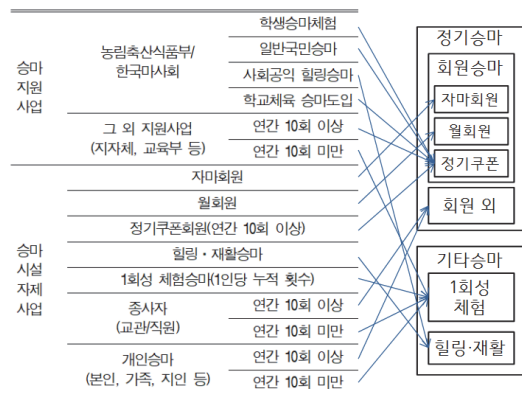


그림 1. 승마이용자수 집계와 통계 공표 유형의 연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0년도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재가공

한편 승마이용자수에 대한 통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되어 왔으나, 2019년에 조사문항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2019년 이후의 자료만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한 비교를 위해 바람직하다. 또한 COVID-19 국내 처음 발생 시기가

2020년 1월이므로,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COVID-19로 인한 승마이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승마이용자수를 통계 공표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COVID-19가 승마이용자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2. 축산발전기금 집행내역

축산발전기금은 <그림 2>와 같이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축산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연간 200억 이상이 말산업육성지원사업에 배정되고 있다. 특히 승마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인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2019년 71.4억, 2020년 72.02억, 2021년 74.88억으로 배정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계획상 배정금액일 뿐, 실제 집행물과는 상이하며, 2020년 학생승마체험은 COVID-19 확산 우려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면 취소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2019년과 2020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승마이용 감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그림 2. 축산발전기금의 목적 및 역할

자료: 축산발전기금(2021). <http://www.ldf.or.kr/>

3. 사업체 정책조사

말산업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조사 및 통계 작성 의무를 갖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에 의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정책조사라는 이름의 부가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2020년도 말산업실태조사의 구성은 <표 2>와 같으며, 이러한 부가조사는 다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정책조사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말산업 국민참여도 조사로 구분된다.

표 2. 말산업실태조사 구성(2020)

	조사구분	조사방법	N
말산업 실태조사	말자원 조사	개체확인	27,114
	말산업 사업체 실태조사	대면면접	2,183
정책조사	사업체 정책조사	대면면접	2,183
	말산업 국민참여도 조사	전화면접	1,81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0년도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특히 국민참여도 조사는 한편 조사대상이 동일하여 말산업실태조사와 함께 실시되는 사업체 정책조사와는 달리 유무선 RDD 전화면접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사업체 정책조사에는 승마이용자수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문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2020년 조사 시에는 COVID-19로 인한 매출변화에 대한 전망과 종사자수 및 말사육두수의 변동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전체 사업체 중에 승마시설만 별도로 구분하여 매출변화 전망과 종사자수, 말사육두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4. 말산업 국민참여도 조사

유무선 RDD 전화면접으로 실시되는 말산업 국민참여도 조사는 사업체조사로서 작성되는 말산업 통계가 갖는 한계점을 수용자 입장에서 확인하고자 시범조사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수용자 입장에서 말산업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등을 파악함에 따라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가구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말산업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나, 다소 작은 표본크기로 인한 추정치의 대표성 부족, 다소 큰 추정오차로 인한 추정치의 불안정성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승인통계로 얻어내지 못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는 매우 높으며, 수용자적 관점에서 승마참여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사업체 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다.

말산업 국민참여도 조사는 <표 3>과 같이 승마 경험 여부, 승마 경험 횟수, 승마 목적 등 승마참여실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COVID-19에 따른 승마 횟수 영향과 전년도(2019년) 승마참여 경험여부를 교차분석하여 COVID-19에 따른 승마참여실태 변화를 확인하였다.

표 3. 말산업 국민참여도조사 승마참여실태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승마 경험 여부 • 승마 경험 횟수, 제주지역 승마 경험 횟수 • 승마 목적 • 가장 많은 승마경험을 한 지역 및 이유 • 승마 회당 소요비용 및 적정비용 • 승마 안전사고 경험 여부 및 치료비용 • 향후 1년 이내에 승마 경험 의향 • 승마 참여 장애 요인 • 승마 횟수에 코로나19 확산이 미친 영향 • 전년도 승마참여 경험 여부 • 승마 미경험 이유에 코로나19 확산이 미친 영향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0년도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내부용)

III. 결과

1. 승마 유형별 이용자수 변화

말산업 통계에서 승마이용자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정기승마와 기타승마는 단순하게 연간 승마 횟수에 따른 차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정기승마인구는 승마시설 또는 정해진 장소에서 승마를 정기적으로 즐기는 사람으로, 승마산업의 안정적 발전정도를 대표할 수 있는 척도로 볼 수 있다. 반면 기타승마인구는 승마를 1회성 체험 또는 이용하는 사람으로, 승마에 호기심을 느끼고 입문

하는 척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타승마는 정기승마와 달리 관광, 여행 등 외부활동에 따른 영향이 크게 반영된다는 특성이 있다.

<표 4>는 2019년과 2020년 승마이용자수 변화를 세부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정기승마인구는 25.8% 감소한 반면 기타승마인구는 47.3%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기타승마인구의 감소는 COVID-19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여행·관광사업이 침체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단체활동 축소로 관광지에서 행해지는 체험승마 형태가 크게 축소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정기승마인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으며, 특히 정기쿠폰회원을 제외하면 15% 이하로 감소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9/2020년 승마이용자수 변화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정기승마인구	승마 자마회원	906	963	▼5.9
	클럽 월회원	2,579	3,023	▼14.7
	회원 정기쿠폰	35,379	49,002	▼27.8
	회원 외	3,451	4,058	▼15.0
소계		42,315	57,046	▼25.8
체험승마인구	1회성 체험승마	447,693	843,910	▼47.0
	힐링·재활승마	7,222	18,600	▼61.2
	소계	454,915	862,510	▼47.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0년도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재가공

정기쿠폰회원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지원사업 3종(학생승마체험, 일반국민승마, 학교체육 승마 도입)과 연간 10회 이상의 그 외 지원사업, 그리고 승마시설 자체 정기쿠폰회원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전체 정기승마인구에서 정기쿠폰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으로서 정기승마인구의 감소는 정기쿠폰회원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자료를 통하여 실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반국민승마와 학교체육 승마도입 지원사업 뿐이지만, 연간 3~4천명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으며, 그 외 지원사업 또한 규모가 크지 않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한 정기쿠폰회원수는 학생승마체험에서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으며, 축산발전기금 집행내역을 통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2.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집행률 변화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의 연간 축산발전기금 배정액은 약 70억원 수준으로 7만명 내외의 학생들의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승마체험은 크게 일반 승마체험과 사회공익 승마체험으로 구분되며,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다시 생활승마와 재활승마로 구분된다. 일반 승마체험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30%, 40% 지원되므로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30%이며,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씩 지원됨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표 5〉는 축산발전기금 중 말산업육성에서 학생승마체험에 해당하는 집행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정기쿠폰회원에 해당하는 수치를 추정하였다. 2019년과 2020년 지원대상은 각각 68,961명과 70,349명으로, 힐링·재활승마(기타 승마)로 산입되는 사회공익 체험승마를 제외하여도 약 6만 명 이상이 정기쿠폰회원으로 승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2019년에 6만 명이 일반 승마체험 대상이 되려면 전체 68,961명의 88% 수준은 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집행률을 반영하여 2019년과 2020년의 일반 승마체험 추정값을 산출하였다.

표 5. 2019/2020년 학생승마체험 지원대상 및 집행률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지원대상(명)	70,349	68,961	1,388
지원금액(천원)	7,199,974	7,139,910	60,064
집행률(%)	52.80	79.55	▼26.75
일반 승마체험 추정값(명)	32,687	48,275	▼15,588
정기쿠폰회원 비중(%)	92.39	98.52	▼6.1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내부 축산발전기금(말산업육성) 예산 집행자료 분석 및 추정

추정 결과, 2019년과 2020년의 일반 승마체험은 각각 32,687명과 48,275명으로 각 년도 정기쿠폰회원 비중의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쿠폰회원 승마이용자수 변화(표 4)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승마체험은 승마산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20년은 COVID-19 확산으로 승마시설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을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전체 승마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한편 학생승마체험을 제외한 정기승마인구의 비중은 약 25% 이하로 추산되며, 성인의 경우 약 20%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원 외 승마인구는 대부분 개인 취미 또는 사업체(승마시설 포함) 종사자가 승마를 하는 경우로 성인이 다수이며, 주기적으로 승마시설을 방문해야 하는 자마회원과 월회원도 성인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COVID-19 확산은 개인 취미로 승마를 즐기는 경우보다는 지원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성인은 학생보다 승마이용 감소폭이 1/2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3. 승마시설 운영 여건 변화

사업체 정책조사 결과, COVID-19의 확산은 말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매출, 종사자수, 말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마시설 또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은 전체 말산업 사업체의 매출변화 전망과 종사자수, 말 사육두수의 변화를 승마시설로 한정하여 재분석한 것으로, 승마시설 일부는 승마시설 운영이 주업종이 아닌 겸업 형태로서 말 사육, 조련, 수의 등 다양한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COVID-19가 승마시설 운영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승마시설 전체의 매출액은 2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마시설 운영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28.1%가 감소하였다. 이는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의 집행률 및 정기쿠폰회원 승마이용자 감소폭과 유사한 것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주된 수입원으로서 매출과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승마시설의 종사자 수는 약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원 외 승마인구가 15%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개인 취미로 승마를 즐기는 경우도 유사하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회원 외 승마에는 종사자가 승마를 하는 경우와 개인 취미로 승마를 하는 경우 외에도 가족·지인 등이 승마를 체험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들 승마체험 유형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승마시설의 말 사육두수 또한 약 6.4% 감소하였으나, 승마이용자수 변화와의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6. COVID-19가 승마시설 운영에 미친 영향

구분	n	증감(%)
매출액 변화 전망	승마시설 전체	▼28.5
	승마시설업	▼28.1
종사자수 변화	승마시설 전체	▼12.5
	승마시설업	▼12.6
말 사육두수 변화	승마시설 전체	▼6.4
	승마시설업	▼6.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0년도 말산업실태조사, 원자료(microdata) 분석

4. 승마이용 환경 및 형태 변화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승마 이용 변화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7>은 2020년 말산업 국민참여도 조사로, 1,812명 표본을 2020년 10월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으로 지역과 성별, 연령으로 층화하고, 지역 간 표본 크기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공근 비례배분을 실시하였다. 모든 표본들이 동일확률로 추출된 것이 아니므로 표본 설계와 응답거부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하여 추정 시 반영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35\%p$ 로, 1년간 승마 경험 추정치(1.4%)를 고려할 때, 추정오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추정의 불안정함에도 국민참여도 조사는 사업체 대상 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책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7. 말산업 국민참여도 조사(2020) 응답자 특성

구분	가중치 적용 전		가중치 적용 후		
	n	%	N	%	
전체	1,812	100.0	49,266,923	100.0	
성별	남성	895	49.4	24,527,317	49.8
	여성	917	50.6	24,739,606	50.2
연령	7~14세	200	11.0	3,745,559	7.6
	15~18세	135	7.5	1,897,331	3.9
	19~29세	270	14.9	7,364,569	14.9
	30대	265	14.6	6,873,117	14.0
	40대	289	15.9	8,294,787	16.8
지역 구분	50대	296	16.3	8,645,014	17.5
	60세 이상	357	19.7	12,446,546	25.3
	대도시	791	43.7	21,439,135	43.5
	중소도시	953	52.6	26,420,840	53.6
	군지역	68	3.8	1,406,948	2.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0년도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내부용)

〈그림 3〉은 COVID-19로 인한 최근 1년간 승마 경험횟수 변화이며, 사업체 정책조사와 달리 승마이용자들을 대상으로 COVID-19가 승마경험에 영향을 주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응답자의 약 60%가 승마경험횟수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승마횟수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15.5%로 오히려 여가활동이 증가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2020년의 평균 승마횟수는 3.9회로 2019년 4.9회에 비하여 1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COVID-19로 인한 영향은 0.4회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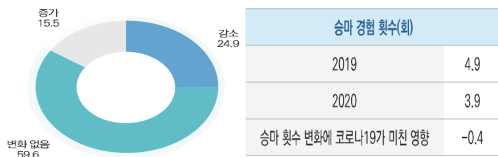


그림 3. COVID-19로 인한 최근 1년간 승마 경험횟수 변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0년도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내부용)

한편 2019/2020년 승마 목적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4〉와 같으며, 2019년의 단순승마체험 비중이 88.1%에서 2020년 38.1%로 대폭 감소한 반면, 운동 및 취미활동 비중이 8.6%에서 56.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COVID-19의 확산으로 승마를 즐기는 형태가 관광 및 체험에서 운동 및 취미활동, 즉 여가 형태로서의 스포츠활동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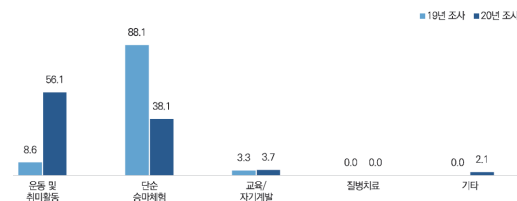


그림 4. 2019/2020년 승마 목적 변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0년도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내부용)

또한 〈그림 5〉의 승마를 즐기는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2020년 관광목적이 44.6%로 2019년 66.2%의 2/3 수준이었으며, 2019년 약 10% 수준이었던 학교수업은 2020년 아무 응답이 없던 반면, 거리·지인소개·시설 등 환경적 요인 비중이 약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승마 고려 요인에서 개인생활이 보다 중요시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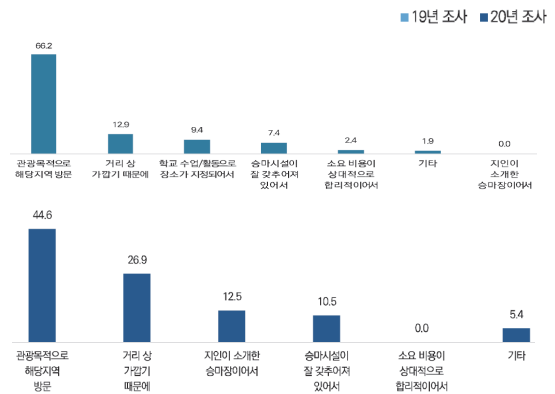


그림 5. 2019/2020년 주된 승마 지역 선택 기준 변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2021). 2019년도 및 2020년도 말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내부용)

2019년과 2020년의 승마경험횟수를 기준으로 정기승마인구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이 승인통계인 말산업실태조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참여도 조사에서 2020년 정기승마인구 비중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산업실태조사는 2.31% 증가하였다.

표 8. 2019/2020년 정기승마인구 비중

정기승마 비중(%)	2019년(A)	2020년(B)	증감(B-A)
국민참여도 조사	9.21%	12.51%	3.30%
말산업실태조사	6.20%	8.51%	2.3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2021). 2019년도 및 2020년도 말산업 실태조사, 원자료(microdata) 분석

I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승마이용의 변화와 그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승마산업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데 있었다.

1. 승마 유형별 이용자수 변화

COVID-19의 확산으로 정기승마인구와 기타 승마인구 모두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에는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말산업실태조사 결과에서 정기승마인구는 약 26% 감소한 반면 기타승마인구는 약 47%로 감소폭이 2배 수준이었다. 이는 말산업의 수요자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기승마인구의 비중이 3.3% 증가하여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COVID-19 확산으로 여행·관광사업의 침체 및 단체활동의 축소가 정기승마인구보다 기타승마인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말은 승마와 경마 같은 레저활동을 비롯해 재활치료·반려동물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아 중요성을 키워가고 있으며, 국내 정기 승마인구는 4만 2000명 수준으로 대중화가 미흡하지만, 인구 수를 감안하면 미국(20만명)·일본(8만 명)과 비교해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성장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철훈, 2021). 한편 정기승마인구의 감소는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의 집행률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COVID-19의 확산으로 승마시설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을 축소 또는 취소함에 따라 집행률이 약 30%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정기승마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정기승마인구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승마 산업의 자생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축구, 농구 등 단체 운동을 즐기는 것은 제약이 있으며, 헬스, 수영 등 실내 활동은 불안감을 떨치기 힘들다(이수경, 2021). 이런 상황에서 넓은 장소에서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는 승마가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스포츠로 주목을 끌고 있으며, 말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 중 분노, 두려움, 즐거움, 행복 등 다양한 자율신경 기능에 관여하는 대뇌변연계가 가장 발달해 인간의 감정을 읽고 교감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으로 타인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접촉을 통한 온기와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다(김두용, 2021). 또한 승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을 힘들 때에 신체를 단련하고 평형성과 유연성을 길러 올바른 신체발달을 돕는 전신 운동으로 알려지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스포츠조선, 2020).

2.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집행률 변화

학생승마체험 지원대상 및 집행률 변화 결과 2019년 68,961명, 2020년 70,349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 일반 승마체험 추정값은 각각 32,687명과 48,275명으로 각 년도 정기쿠폰회원 비중의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2년 말산업육성법 및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은 승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승마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2019년 산출총액 기준 1,040 억원으로 2013년 933억에 비해 11.3%, 취업인원 기준 41.3%(2,530→3,575명)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의 역할이 돋보였는데,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승마의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의 승마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20년 COVID-19의 확산으로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의 역할은 1/2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기승마인구 또한 3/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승마산업이 정책 지원에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을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전체 승마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아직 초기인 말산업, 특히 승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지원사업만 바라보고 운영하는 시설이 다수인 점은 육성정책에 변화를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COVID-19 확산에도 다양한 승마지원 사업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재활승마는 언어 능력 향상, 사회적응력, 집중력, 인지능력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 유치원이나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100명 이상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최인석, 2021). 또한 마사회는 사회부적응 청소년과 소방관·코로나19 의료진 등 사회공익 종사자를 위한 '사회공익·힐링승마'를 무상 운영하고 있으며, 승마지도사·말조련사 등 승마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승마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김철훈, 2021). 이처럼 재활승마와 사회공익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승 위주의 승마체험이 아닌 말문화, 말복지 등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로 말과 친해질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승마시설 운영 여건 변화

승마시설 운영 여건 변화에서 승마시설 매출 28.5%, 종사자 수 12.5%, 말 사육두수 6.4% 모두 감소하였다. 2011년 말산업육성법 제정과 2012년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육성정책에 힘입어 말 사육두수와 승마장 시설 같은 말산업 인프라 규모는 일정 정도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김철훈, 2021).

신종 COVID-19 확산 후 말산업 전체가 입은 피해액은 약 7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자체 재원을 투입했던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4600억원의 적자를 기록, 유보금마저 고갈됐고, 마사회가 매년 출연하던 1000억원 가량의 축산발전기금도 바닥을 드러냈다(김하늬, 2021). '2020년 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468개소 승마시설 중 436개소가 실외 마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면적은 약 9524㎡이고, 전국 223개소가 보유한 실내 마장 시설 역시 평균 1497㎡로 국제 규격의 풋살장의 약 2배 면적이다(권대환, 2021).

이에 승마 이용자들이 코로나 블루에 따른 우울감과 피로감을 운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 방역 및 회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공공체육 시설 이용요금 1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전병용, 2021). 또한 마사회는 승마강습과 말 사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그린승마존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그린승마존이 국내 말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하고 있으며(김두용, 2021),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 복지증진·축산농가 활성화·여가 선용을 위해 승마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있다(김철훈, 2021).

종합 승마 플랫폼 서비스인 '말타'를 통해 손쉽게 승마장 체험·강습 프로그램을 예약, 결제할 수 있으며, 주변 승마장 검색과 승마 수업에 대한 피드백과 승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이수경, 2021)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승마는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광범위한 대중화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4. 승마이용 환경 및 형태 변화

2019년과 2020년 모두 승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COVID-19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의 평균 승마횟수는 2019년 대비 1회 정도 감소하였으나, 그 중 COVID-19로 인한 감소 횟수는 0.4회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마의 목적도 단순승마체험 위주에서 운동 및 취미활동으로 변화하였고, 승마를 위한 고려요인 또한 근거리, 지인 소개, 시설수준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COVID-19의 확산으로 승마를 즐기는 경우가 여행·관광 등을 통한 단체승마체험에서 개인 여가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동거리, 승마시설 수준, 서비스, 교육 등 환경적 요인을 보다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실내승마장을 전국적으로 조성하여 승마산업 대중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10여년의 말산업육성정책 추진으로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국내에서 승마는 여전히 ‘상류층 레저’라는 인식이 남아있으며, 접근성이 좋지 않은 시설도 아직 다수 존재한다. 또한 부상의 위험이 높다는 우려로 승마로 인한 사고현황을 법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승마업계에서는 어린이와 고령자 모두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400곳 이상의 승마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골프보다 승마가 저렴하기 때문에 승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 여가선용의 다각화를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승마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김철훈, 2021).

승마이용의 이같은 변화는 COVID-19 상황에서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골프산업으로부터 유사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오상엽(2021)은 COVID-19로 인한 해외여행 급감, 실내 활동 및 모임 자제, 여가 활동의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야외)은 실외활동으로 인식되어 이용객이 증가하였고, 특히 스크린골프장의 경우에는 밀폐된 실내시설임에도 해외 원정 골프의 유입, MZ세대(현재 20·30대)의 신규 입문 증가(65%) 등으로 이용객과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

하였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시행으로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가능해지면서 퇴근 후 체육활동이 늘었으며, 2020년 생활체육 관련 강좌/강습 중 골프가 12.3%로 전년 대비 1.8%p 증가하였으며, 골프 동호회 가입률도 14.4%로 전년 대비 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특히 같은 실내라는 여건에도, 골프연습장은 쇠퇴하고 스크린골프장은 성장한 부분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이는 밀폐된 실내라는 악조건을 스크린골프장은 현실감, 게임성, 재미, 근접성, 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요소와 함께 풀어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MZ세대의 신규 유입과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골프산업은 개인활동, 야외활동,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특성을 살림으로서 COVID-19라는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승마산업도 이를 참고하여 정부의 지원사업과 승마시설 자체운영방식이 현재 COVID-19 그리고 이후 시점에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COVID-19의 확산이 승마이용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코로나 19 시국을 극복하고 야외레저 활동으로 승마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승마이용과 관련한 자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승마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승인통계인 말산업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축산발전기금 집행내역, 마사회 내부 통계자료(사업체 정책조사, 말산업 국민참여도 조사), 지원사업 및 기금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COVID-19의 확산으로 승마 유형별 이용자수 변화는 정기승마인구와 기타승마인구 모두 감소하였으나, 기타승마인구에서 47.3%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둘째, 2020년 COVID-19 확산으로 승마시설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을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정기승마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승마시설 운영 여건은 승마시설 매출액이 약 28.5% 감소하여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축소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마 종사자수는 약 12.5%, 말사육두수는 약 6.4% 감소하였다.

넷째, 승마이용 환경 및 형태 변화에서 평균 승마횟수는 1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OVID-19로 인한 영향은 0.4회에 불과하였다. 단순승마체험이 2019년 88.1%에서 2020년 38.1%로 대폭 감소한 반면, 운동 및 취미활동 비중이 8.6%에서 56.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 장소 선택기준은 관광목적이 2020년 44.6%로 2019년 66.2%의 2/3 수준이었으며, 2019년 약 10% 수준이었던 학교수업이 2020년에는 아무 응답이 없던 반면, 환경적 요인(위치, 시설) 비중이 약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20년 정기승마인구 비중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COVID-19 확산에도 승마를 즐기는 사람은 기존의 승마이용 형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동 거리, 승마시설 수준, 서비스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깊어진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승마 이용이 여행·관광 위주 단체 승마체험에서 개인 여가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승마산업의 안정적 발전정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정기승마 인구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승마산업의 육성을 넓은 범위에서 생각하면, 단순히 승마이용자수를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승용마의 육성과 조련, 교관 등 전문 인력의 수급, 승마대회 활성화 등 매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서명천 등, 2021).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위축되고 비대면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생활승마, 힐링승마, 재활승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저렴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대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COVID-19라는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도 골프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용자의 욕구를 감지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승마산업은 말산업에 속하지만, 한편으로는 스포츠산업이기도 하다. 스포츠로 바라보는 승마는 개인활동 및 야외활동 속성을 갖고 있으며, 엘리트체육으로서 선수활동 또는 생활체육으로서 동호회 활동, 여행·관광목적의 단체승마체험이 주된 승마이용 형태이다. 따라서 COVID-19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는 골프산업과 비교할 때, 스포츠로서 승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토대로 유사산업인 골프 산업의 성장으로부터 승마산업 발전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야외 스포츠 활동으로서 장점을 부각시키고, 숲·산악·해변 등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외승승마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홍보해야 한다.

둘째, SNS 홍보, 개성 있는 승마용품 등 MZ 세대를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하여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한 유소년 육성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승마시설 회원 또는 이용자 등을 통한 지인 소개,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 활동 등 승마 이용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시설수준과 교육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스크린골프와 같이 안전하고 게임성 있는 시뮬레이터 개발로 승마 이용에 접근성과 재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의 훈련센터 · 스크린 승마시설 등을 도입해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확산이 승마이용에 미친 변화를 살펴봤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COVID-19 확산에 따른 승마 이용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승인통계와 내부 수집자료 및 행정자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나, 승마이용 또는 말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제하여 순수한 COVID-19만의 영향을 판별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고안, 자료수집 및 심층 분석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말산업의 공급자 입장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대부분으로, 말산업의 수용자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대표성이 부족하여 심도있는 추론을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일반 승마 이용자를 대상으로 승마이용 현황 차이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비교 분석해 본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고광욱(2020).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활동수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1), 109-112.
고봉조, 여영준, 류연철(2018). 제주지구력승마페스티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영컨설팅연구*, 18(4), 161-171.
구자홍, 이재범, 김용국(2011). 승마참가자의 인식과

재미 및 만족감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6(1), 715-728.
권대환(2021.04.22.). 푸른 봄, 인파를 벗어나 호젓하게 승마 어때요?. *내외뉴스통신*.
<http://www.nbnnews.co.kr>
김경식(2006). 대도시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와 여가 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두용(2021.04.23.). '코로나 블루' 극복...승마체험 어때요. *일간스포츠*.
<https://n.news.naver.com/article/241>
김봉수, 백혜경, 양명환(2016). 제주도 승마동호인들의 승마 참여제약과 중단원인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40(1), 48-68.
김양례(2009). 여가활동 유형과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한 삶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20(3), 553-566.
김창희, 강희재, 김수옥(2015). 관광 및 레저를 위한 경마, 승마 등 말(馬) 관련 경영 활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산업 연관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63, 43-61.
김철훈(2021.06.10.). 한국승마산업 현주소(하) 말산업 벼랑끝 속 '10년 공든탑' 승마 이대로 무너뜨릴건가. *글로벌이코노믹*.
<https://news.g-enews.com>
김하늬(2021.07.25.). [벼랑 끝 마사회②] “생존대책” vs “도박조장”...온라인 마권 대립. *이코노미스트*.
<https://n.news.naver.com/article/243>
농림축산식품부(2019). 2019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설명서.
농림축산식품부(2020a). 2019년도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2020b). 2020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설명서.
농림축산식품부(2020c). 2020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2021a). 2020년도 말산업실태조사

- 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2021b). 내부 축산발전기금(말산업 육성) 예산집행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생활체육조사 보고서.
- 박재홍(2015). 승마용품 구매결정요인이 브랜드특성 및 사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박진국(2016). 승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서명천, 장재봉, 류근창, 송완구, 김영철, 윤여경, 이은정, 김영희, 김병선(2021). 승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마사회.
- 서승태(2015). 한국 레저승마산업의 발전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32, 101-116.
- 송성인(2012). 체류형 승마관광산업과 환경인식의 관계성 연구. *Tourism Research*, 34, 183-198.
- 스포츠조선(2020.08.05). 평안홍업(주) 동서울승마클럽 비대면 스포츠 승마! 인기몰이!!
<https://sports.chosun.com>
- 오상엽(2021). 코로나19가 갈라놓은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의 차별화.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
- 윤여경, 조광민(2017).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국내 승마산업 지원 정책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2(6), 35-59.
- 윤지인, 한진욱, 이지원(2021).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코로나 관련 위험인지,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행동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45(1), 89-101.
- 이수경(2021.04.26.). 승마 '코로나시대 스포츠'로 주목. 스포츠한국.
<http://naver.me/xIhSJP93>
- 이충기, 고성규, 김진옥(2014). 승마체험 동기가 가치와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구조관계 분석. *관광연구*, 28(6), 203-226.
- 임찬연(2014). 승마레저 참여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 전명숙(2019). 계룡시 승마관광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관광경영연구*, 93, 157-176.
- 전병용(2021.06.22.). 경북 구미시설공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하면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매일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8>
- 전윤수(2011). 생활체육으로서 승마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9(2), 61-74.
- 정호권(2013). 우리나라의 레저승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9(3), 99-117.
- 조한범, 김미향, 우승주, 한성희(2014). 여가형 승마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선택속성, 구매 후 행동 간의 관계 분석.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8(2), 124-136.
- 최인석(2021.05.23.). 안전하고 효과 입증된 '재활승마' 국내외서 인기. 중소기업신문.
<http://www.smedaily.co.kr>
- 축산발전기금(2021.09.04.). 기금설치목적 및 근거. 경영공시. <http://www.ldf.or.kr/>